

## 출판계 움직임



‘도서유통현대화를 위한 결의문’을 채택한 出協 긴급임시총회

# 대형서점 추진 ‘대책위원회’ 구성키로 出協, 긴급 임시총회에서 만장일치 결의

### 出協, 문공부에 건의서

出協은 7월21일 문화공보부에 「출판문화 활성화를 위한 건의서」를 냈다. 건의서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 ① 80년 이래 중단되고 있는 출판사의 신규등록 및 상호·대표자 변경 등록을 재개할 것. ② 販禁중용 등 제재조치 받은 도서들의 재검토, 해제. ③ 한국도서잡지주간신문윤리위원회의 기능을 설립목적대로 순수한 자율적 심의기구로 환원시킬 것. ④ 언론사의 도서출판업에 대한 검열 금지조치 강구. ⑤ 출판활동을 저해하는 관계법령·제도의 정비. ⑥ 외국인의 출판사업 투자 금지규정의 명문화.

### 出版大學 개강

出協부설 출판인대학 제7기 편집코스(사진)가 7월 6일 개강했다. 8월 22일까지 매일 3시간씩 강의를 받는데 강사로는 韓勝憲(변호사)·李重漢(서울신문 논설위원)·이승구(대한교과서 出版常務)씨 등 22명이 초빙됐다.

### 敎學社 水害 입어

7월말 내린 중부지방의 집중호우로 敎學社(대표 楊澈愚) 독산동 공장의 창고가 침수돼 참고서 2백만부가 손상을 입었다. 교학사측은 피해액을 24억원(정가기준)으로 추정하고 있다.

### 汎友社 독후감 모집

汎友社(대표 尹炯斗)가 창업 21주년을 맞아 제2회 독서감상문을 모집한다. 國·中·高 및 대학·일

대한출판문화협회(회장 林仁圭)는 8월 5일 긴급 임시총회를 열고, 출판계가 당면한 최대과제인 대형서점의 설립추진을 위해 빠른 시일 안에 ‘대책위원회’를 구성키로 결의하는 한편 ‘도서유통 현대화를 위한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날 임시총회는 최근 폭주하는 출판물량의 원활한 유통을 위해서는 서점의 매장공간 확보가 가장 시급하고도 절실한 과제라는데 뜻을 같이하고, 서점매장 확대를 위한 제반사항을 추진해 나갈 대책위원회의 구성을 회장단에 일임키로 했다.

한편 이날 채택된 결의문은 ①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도서를 전시·수용하고 독자들에게 충실히 봉사할 수 있기 위해 서점환경의 현대화를 서적상계 스스로가 성취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② 서점의 신규개점조차 다중의 힘으로 저지·봉쇄해온 일부 기존 서점들의 횡포에 대해 앞으로는 단호하게 대처할 것

을 다짐했다.

결의문은 이어 ③ 교보문고가 전국 6개 도시에 이미 조성해놓은 서점공간을 어떻게 해서든지 확보하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천명하는 한편 ④ 지방서점망의 확대를 통해 책의 문화가 신속히 확산될 수 있도록 광범위하고 근원적인 지원정책을 관계당국에 강력히 건의했다. (결의문 전문 별함)

이날 오후2시 출철 강당에서 열린 임시총회는 출판사대표 315명이 참석, 전에 없는 열기 속에 진행되었다. 특히 이번 임시총회는 40년 출협사상 두번째로 열린 임시총회라는 데서 사안의 중대성이 부각되고 있다.

### 도서유통 현대화를 위한 결의문

오늘 우리 전체 출판인은, 단호한 의지와 결단으로 도서유통의 현대화를 위하여 대한출판문화협회 임시총회를 개최하였다.

우리는 저작자와 출판사와 공동노력에

의해 창출된 도서를 독자와 맺어주는 매개자로서, 만남의 광장이며 지역문화 발전의 중심거점으로 가장 기본적이고 소중한 문화공간이기도 한 서점의 환경이, 더 이상 방치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음을 안타깝게 생각한다.

독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서적상계의 발전을 위해 출판물의 정가 판매제를 정착시킨 이유도 서점의 경영합리화를 통해 유통의 현대화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 것이었으나, 1971년 이후 1986년까지 도서발행량은 무려 12.8배나 증가한데 비해 서점 수는 겨우 1.2배의 증가에 그쳤을 뿐이다. 전국 서점의 평균 매장 면적이 현재 거대되고 있는 10만 여종의 도서를 진열하는데 필요한 면적의 2%에도 미치지 못하는 현실에서는 독자들이 원하는 도서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원천적으로 박탈당함으로써 풍요속의 기근현상과, 엄청난 질량으로 창출되고 있는 우리 출판문화가 정당하게 평가받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또한 서점이 대도시에 집중됨으로써 출판물 비뚤어진 문화정보의 향수에 있어서도 많은 계층이 소외당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되었다.

이에 우리 출판인은 현대사회에 있어서

반부로 나누어 범우사가 선정한 총 21권의 도서 가운데 하나를 골라 응모하면 된다. 마감은 8월 31일까지, 총 72명에게 시상할 계획이다. 문의처는 717-2121, 716-5151.

### 幼兒敎育 강습회 열어

國民書館(대표 文鍾誠)은 제1회 幼兒敎育 강습회를 7월23~24일 한국일보 강당에서 가졌다.

첫날에는 金在恩(이화여대)·李延燮(중앙대)교수와 金正萬씨(서

울대공원)의 강연 및 柳德熙교수(서울교대)의 리듬악기 실기지도가 있었으며, 둘째 날에는 李貞煥(이화여대교수)·許權旭(KBS전문위원)·朱貞一(원광아동상담실장)씨의 강연과 四物놀이 공연이 벌어졌다.

### 雜誌大學 제7기 강좌 개강

한국잡지협회(회장 李鍾均)는 전문편집요원을 양성하기 위한 편집·취재 실무과정의 잡지대학 제

7기 강좌를 9월 1일~10월 30일까지 잡지회관 강당에서 개강한다. 강좌 교과목은 언론매체, 잡지기획론, 취재·편집, 레이아웃, 아트디렉선, 기사 및 원고작성, 교정 등을 중심으로 실무와 사식, 제판, 용지, 인쇄, 제책, 광고 등을 다룰 계획.

### 「87 판매도서목록」 펴내

한국출판협동조합(이사장 許昌成)은 「'87 판매도서목록」(KPC BOOK CATALOG '87)을 펴냈다.

도서가 지닌 기능을 보다 유효하게, 그리고 능률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시급히 서점의 환경을 개선하고, 출판계와 서적상계 간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해 나가는 구체적인 작업을 실천에 옮기지 않으면 안된다는 사실에 대해 견해를 같이하고,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우리 출판인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도서를 전시·수용하고, 독자들의 여망에 보다 충실히 봉사할 수 있도록 서점공간간의 대형화, 그 시설의 현대화와 경영방식의 쇄신이 당면한 절실한 과제이며, 이러한 서점 환경의 현대화는 서적상계가 스스로의 의지와 노력으로 성취시켜 줄 것을 거듭 촉구한다.

2. 우리 출판인은, 도서유통 환경의 현대화에 대한 강력한 사회적 요구에도 불구하고 서적상계가 대형서점의 신규 개점뿐 아니라 소규모의 영세서점 개점 노력조차 다중의 힘으로 저지·봉쇄해 온 사실에 대해서 실망과 배신감을 금치 못하며, 일부 기존 서점의 이런 때문에 저술가와 출판사 및 독자의 권익이 더이상 침해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하여 앞으로 이와 같은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할 것을 결의한다.

3. 우리 출판인은 교보문고가 부산, 인천, 광주, 대전, 마산, 전주 등 6개 도시에 서점공간으로 이미 조성한 대한교육보림빌딩의 시설이 어떻게 해서든지 서점공간으로 확보되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할 것을 결의한다. 지방에서는 제대로 전시조차 되지 못하고 사장되고 마는 수준 높은 도서가 독자로부터 선택받는데 지장이 없을 정도의 충분한 서점공간을 전국적으로 골고루 확보할 때, 비로소 서울과 지방문화의 격차를 줄이고 문화의 지방균점을 앞당길 수 있는 첩경임을 믿고 있는 우리는, 이를 촉진시키기 위해 서점공간 확보추진 위원회를 범출판계 인사로 구성할 것을 결의한다.

4. 우리 출판인은, 지방서점망의 확대를 통해 책의 문화가 신속히 확산되고 독서인구의 저변확대와 지방문화의 균형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광범위하고 근원적인 지원정책을 강구하여 줄 것을 관계당국에 건의한다.

1987. 8. 5

대한출판문화협회 회원 일동

'86년 신간도서목록, 출판사별 도서목록, 책이름 찾아보기, 수상 및 선정도서목록, 한국출판협동조합 현황 등을 수록. (A5신 1646면)

### 靑木社 사무실 이전

도서출판 靑木社(대표 朴炫植)가 중구 충무로에서 성동구 성수동2가 289-6으로 사무실을 이전했다. 새 전화번호는 465-3931(대표), 462-9248, 468-5861.